

## 산재예방유공 노동부장관상 수상



백금주  
선창산업(주) 보건관리자

서울근교에서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인천 앞바다가 아닐까 싶다. 학창시절의 추억을 따라 문화의 거리를 걷고 싶다면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8부두를 지나 월미공원을 바라보면 우측에 선창산업 정문이 보인다. 진한 바다냄새가 코끝에 맺힌다. 그리고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환한 미소를 띤 누이 같은 이를 만날 수 있다. 2005년 7월 1일 제 38회 산업안전보건 대회에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재예방유공 노동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얻은 선창산업(주) 백금주 보건관리자이다.

중앙길병원 내과병동에서 근무하였고, 환자가 아닌 건강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서 산업간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선창산업의 보건관리자 백금주 선생님! 입사한지 어언 10여년이 훌쩍 지났다.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스스로 보건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근로자들이 보여줄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행복한 미소를 띠는 산업간호사!

건강진단결과 질병자로 판정되어 치료를 요하는 근로자를 교육하고 설득하여 근로자 스스로 치료를 받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잘하여 익년도 건강진단 결과 건강자로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정년을 앞 둔 현장근로자와 건강 상담을 하며 가정에서 소외된 가장의 힘든 이야기를 단지 경청만 해드렸을 뿐인데 퇴직 후 직접 농사를 지어 첫 수확한 맛있는 고구마 한 박스와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편지 한통을 택배로 받은 일,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중간관리자의 이견과 예산부족으로 무산의 위기까지 갔으나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상급자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하여 결국은 사업을 실시하게 된 일, '사람들은 큰일에 많이 감동하지 않고, 다만 나의 작은 관심과 진실한 마음이 그들의 아픔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마음인 것 같다'고 말하는 그녀. 이심전심일까? 그런 그녀를 주위사람들은 친근감이 느껴지는 평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천사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현재 한국산업간호협회 인천지부장을 역임하여 발로 뛰는 산업간호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간호사를 찾은 사람들에게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산업간호사 스스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근로자의 말을 경청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또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되도록 산업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배우기를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건강관리실은 언제나 편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따스한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 많은 일들을 음으로 양으로 묵묵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수상을 하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인천지부 회원들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산업간호사가 맡은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정진하고 누구에게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산업간호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인생을 즐기며 성실하게 살자는 그녀의 좌우명이 머리에 스치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싶다.